**연중 제3주일(2018년 1월 21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2018년은 “본당 쇄신의 해”

“주님의 평화가 항상 우리와 함께!”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는 2018년을 ‘본당 쇄신의 해’로 정하고, “주님의 평화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하고 기도합시다.

생활 지표:

2018년 체리힐 한인천주교 본당 공동체는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신자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신앙 생활에 보다 충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도 행전에서 초대 신자 공동체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고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사도행전 2:42-47)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그리고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아무도 가난하거나 상처받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 본당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런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교회는 하느님의 영이 거처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와 침묵의 장소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삶의 역경과 고난을 위로받고, 그리스도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곳이 바로 본당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이런 기본 역할에 충실하도록 함께 노력하고 서로 배려합시다.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과 복음에 기초한 ‘실천하는 신앙,’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을 생활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고, 그래서 2018년은 “주님의 평화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한 해가 되길 우리 도두 다함께 기도합시다.

활동 사항: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내적 성장과 신앙 성숙에 집중하면서, 기본적인 신앙 생활에 충실합니다.

주일 미사는 의무적으로, 그리고 평일 미사도 되도록 자주 참석하도록 하여, 성체 성사의 은총을 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정기적인 고백 성사로 양심 성찰을 통해 주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매 주일 미사 30분 전에 성당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체 조배 및 성체 강복, 묵주기도

개인적인 신심 생활을 실천합니다. 예를 들어, 묵주기도, 9일 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등등

공동체 평화를 최우선 덕목으로 선정합니다.

성당 안에서는 가급적 침묵할 것을 권고합니다.

서로 비판하고 따지고 간섭하기 보다는, 서로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칭찬과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을 자주하며,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실천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는 표현을 서로 자주 사용하도록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토대로 초대 복음 정신으로 돌아갑니다.

구역 복음 나누기, 구역 미사를 정기적으로 갖습니다.

성경 공부 ‘여정’ 모집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기초 여정 15주, 마태오 복음서, 루가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여정 각각 9주-10주

친교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생활화합니다.

본당 각종 행사와 친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구역 모임을 활성화합니다.

솔선수범하고 자진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쁘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 합니다.